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9  
통광 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 원각경(11월 18일)



# 환(幻)을 여의면 곧 깨침이라

흔히 우리가 '명실상부(名實相符)'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름과 실제가 서로 딱 부합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곳 교종 본찰인 봉선사야말로 진정으로 '명실상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 봉선사에서 주석하시다가 입적하신 초대 역경원장 윤허 큰스님과 2대 원장인 조실 월운 큰스님의 크나큰 원력에 의하여 해인사에 소장된 팔만대장경이 다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35-6년 전에 봉은사에서 윤허 노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오니 그 당시 들은 얘기가 생각납니다. 윤허 스님은 평생에 100일기도를 세 번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한국전쟁 당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종전(終戰)을 염원하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 회향날 정전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한국전쟁 당시 불탄 봉선사 복원을 염원하며 했다고 합니다. 역시 회향날 설판자(시주자)가 나타났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바로 해인사 소장 팔만대장경 역경 원력이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있는 팔만대장경은 토점도 없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 하며 역경 원력을 내신 겁니다.

그 큰일을 하려면 한 개인 시주로는 어렵겠고 정부 지원을 받아야겠다고 원을 세우고 100일기도를 하셨습니다. 회향식날 석남사에 주석하던 인홍 스님이 찾아왔어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인홍 스님이 청와대로 이후락 비서실장을 만나 석남사 중창불사 지원 요청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허 노스님이 대장경 역경 지원 요청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인홍 스님이 청와대에 갔는데 석남사 얘기는 알고 팔만대장경 역경 지원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러자 이후락 비서실장이 "스님께서 여기 오신 이유가 석남사 불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하니 인홍 스님이 말할길 "윤허 노스님 역경 원력을 듣고서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원력을 세웠구나 해서, 두 가지 다 이야기

하면 역경 신청이 흐르질까봐 역경 지원만 얘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정부지원으로 팔만대장경 역경 지원은 물론 석남사 중창도 이뤄졌습니다. 지금은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월운 큰 스님이 생존해 계실 때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원력을 가지고 계신분이 추진 할 때 그 것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경에 근거하지 않은 수행을 하면 '외도' 경전은 '법신사리' ”

이 법회의 주제가 '경전 수행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굉장한 주제 같지만, 저는 경전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종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합니다. 선종에서 근본으로 내세우는 것이 삼처전심(三處傳心)입니다. 즉 부처님이 선을 전한 것을 삼처전심이라 말합니다. 그 삼처전심의 근거 문헌은 <대법 천왕문불결의경>이라고 합니다. 불립문자를 말하지만 그 근거 또한 경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경에 근거하지 않는 수행을 하면 외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법신사리'라고 합니다. 옛날 인도의 아쇼카 대왕이 아난존자의 탑에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때 시타신



통광 스님은 경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며 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가 말하기를 '다른 훌륭한 존자들에도 많은데, 유독 아난존자 탐에만 예배를 하십니까' 하니, '다른 존자들은 자기만의 수행과 깨달음에 머물렀지만 아난존자는 경전을 결집 유포해 오늘날까지 전한 은공이 있어 예배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원각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법장의 교판에 의하면 원각경은 돈교에 속하는 선경으로서, <유마경> <능가경>과 함께 선가에서 중시하는 경전입니다. <

원각경>의 구제적인 이름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義經)>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의 대(大)는 체성(體性), 방(方)은 덕상(德相), 광(廣)은 업용(業用)을 뜻합니다. '원각(圓覺)'은 체상용(體相用) 삼대(三大)를 갖춘 원만한 각성으로서, <열반경>에서 말하는 불성과 같은 뜻입니다. '수다라(修多羅)'는 범어인데, 한역하면 계경(契經)이니, 진리와 근거에 결합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요의(了義)는 대승의 진리

를 남김없이 다 말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이란 수다라와 같은 의미인데, 앞의 수다라는 모든 경전을 지칭하는 것이고, 뒤의 경은 본 경에 해당하는 것이니, 모든 경전 중에서 이 경이 요의경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다라요의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원각경>은 북인도 계빈국 사문 불타라 삼장이 법본을 가지고 와서 번역한 것입니다. <원각경> 연구의 대가였던 규봉 중필(780-841)의 약소(略疏)에는 북도 장해사의 <도전법사소>를 인용하여 '카시미르 삼장법사 불타라다가 장수 2년(693) 용집사에서 번역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각경>은 무명분공(無明本空, 무명은 본래 공하다) 원각본구(圓覺本具, 원각은 본래 갖추어져 있다)라는 대승교의를 어느 경보다 철저히 천명한 것으로써 대승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경전 중의 하나입니다. 이 <원각경>의 대의는 단무명(斷無明, 무명을 끊고) 현불성(顯佛性, 불성을 나타낸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무명은 본래 공한 것 허깨비를 허깨빈줄 알면 곧 깨달음 얻어 ”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고통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데 있습니다.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이 죽는 고통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어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기 위해서는 바로 무명을 끊고 불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원각경>의 가르침입니다. 무명을 어떻게 끊고 불성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라는 것을 원각경의 각 장을 짚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각경>에 보면 다른 경과 달리 장소 개념이 없고, 삼매 중에서 정토를 나타내 열 두 보살이 부처님께 묻고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수보살이 질문하는데 그것이 문수장(文殊章)입니다. 이

장은 부처님의 인지법행(因地法行)에 관해 질문을 하니, 답하시기를 "무상법왕의 대다라니 문이 있으니 그것을 원각이라고 한다.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및 다라니를 유출하여 보살에게 가르쳐 주나니, 일체 여래가 본기인지(本起因地, 본래 일으킨 인지)에서 모두 청정각상(淸淨覺相, 청정하고 깨어 있는 것)을 원만히 비추어 봄에 의하여 무명(無明)을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불과(佛果)를 수증(修證)함은 처음 발심한 마음을 여의지 않습니다. 처음 발심한 마음이 잠잠지 못하면 바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발심한 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이것은 청정각상을 원만히 비추어 보아 불성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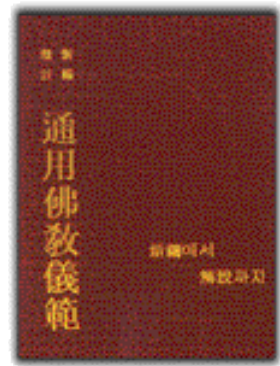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원각경>에서의 원각은 근본 본성으로 볼 수 있고 또 본원자리로 깨달아 들어가는 방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래 청정한 근원자리를 원만히 비추어 볼 때 무명이 본래 공한 줄을 압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는데 무엇이 있어 그렇게 듣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나라 시대 배후(791-870)가 쓴 <원각경 서문(血氣序)>에서 '가축 밑에 파와 기(氣)가 있는 무리들은 반드시 알(知)이 있다. 무릇 알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체성(體性)이 똑 같으니, 그 자리는 이른바 참되고 맑고 밝고 묘하고 텅비고 사무치고 신령스럽고 통하여 우뚝하게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생의 본원이기 때문에 심지(心地)라 하고,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보리라 하고, 서로 사무치고 원융하게 포섭하기 때문에 법계라 하고, 고요하고 영원하고 즐겁기 때문에 열반이라 하고, 혼탁하지 않고 흘러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청정이라 한다. 허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여라 하고, 허물을 여의고 그릇됨이 끊어졌기 때문에 불성이라 하고, 선을 보호하고 악을 막기 때문에 총지라고 하고, 숨기고 덮고 함용하고 포섭하기 때문에 여래장이라 한다. 또 현비(玄微)를 초월했기 때문에 밀엄국이라 하고, 온갖 덕을 통합하여 크게 갖추었으며, 온갖 아들을 사무어 없애고 홀로 비추기 때문에 원각이라고 한다. 그 실체는 모두 일심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법계' '불성' 등과 이름은 다르나 모두 같다는 말입니다. 교가(敎家)에서 가장 높은 법문으로 치는 <화엄경>의 대지는 '만법을 통합하여 한 마음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것

## 알기쉬운 佛敎 儀式

#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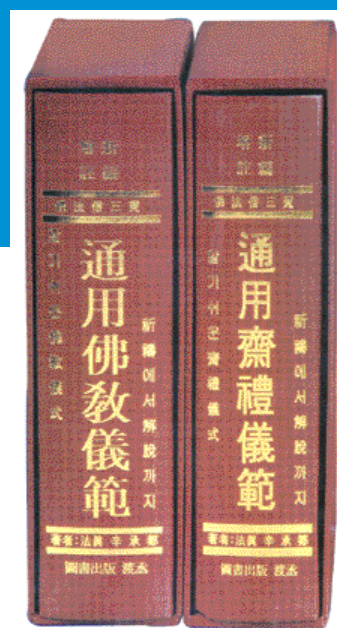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명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었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피자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아보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 제1장 승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재물보살법정민익
- 제8장 재물보살
- 제9장 파불의식
- 제8장 점안편
- 제9장 미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 알기쉬운 齋禮 儀範

#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시간 만물지중엔 유인이 上嚴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이 上嚴貴함이 있어야만 이 上嚴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細靡擘해 집필하신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속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무 마하야마 바라밀

-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제4장 四十九齋
- 제5장 재공편
-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壇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